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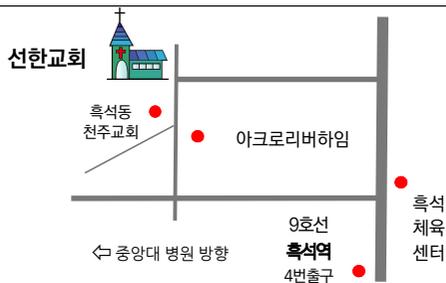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 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 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해 외 선 교 사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진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박 영 근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유 신 응, 조 윤 익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سی용(동작 01, 10, 21)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16:11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9:30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40장 (통일찬송가 43장)
교 독 문	교독문 16 (시편 28편)
찬 양 과 경 배	428장 (통일찬송가 488장)
대 표 기 도	박영근 장로
말 씬 봉 독	마태복음 5장 3 ~ 5절
설 교	온유한 자의 복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대인관계 법 (롬12:14-21)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안내**
 - 주일예배: 5월 10일부터 교회에서 2부(9시30분/11시)로 나누어 드림 (11시 예배영상 제공)
 - 주중예배: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림 (영상제공하지 않음)
 - 각종행사: 체육예배를 포함한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개인건강훈련 안내**
 - 가정예배드리기 2.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 성경일독하기 [보충] ※일독 기념품 증정
 - 경건서적읽기 5.부서별 카톡 성경공부
 - 성경암송(20구절): 습3:17 / 렘29:11 / 히6:14,15
 요15:7 / 살전5:16-18
- 코로나19 기도 제목**
 -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 코로나 19 치료를 위해 중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코로나 19 확진자들의 완치와 빠른 백신 개발을 위해 기도합니다.
 - 중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 회개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 코로나 19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 코로나 19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한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찬송 :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289장(통 208)

본문 : 창세기 39장 6~7절

말씀 : 요셉은 죽음이 뭔지도 모를 만큼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죽음 너머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품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애처로운 마음에 남달리 아껴주는 아버지의 사랑과 배다른 형들의 질투, 미움이라는 갈등 속에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 열일곱 나이에 형들에 의해 남의 나라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으로 취급받는 사람, 그것은 이집트 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적 형들에게 편안한 인사 한번 받아본 일 없었던, 노예가 된 지금도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미래가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노예는 아무리 열심히 잘살아 봐야 노예일 뿐입니다.

한숨과 눈물이 마를 날 없었을 10년 기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요셉은 하는 일마다 '형통한 자' 되어 주인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의 은혜의 옷을 입히시니 주인이 신뢰의 옷을 요셉에게 입힙니다. 처음에는 가정 총무가 되고, 나중에는 주인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불행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남다른 불행 가운데도 특별한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대의 소년이 그새 용모가 준수한 20대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노예일 뿐이지만 권세 있는 집안에서 인정받는 일꾼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셉은 이제 능력 외모 인품 업무까지 갖춰진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는 그런 요셉을 바라보는 두 종류의 눈이 있었습니다. 주인이었던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요셉의 준수한 용모만 보였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몸매가 곱고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머리와 어머니 라헬의 외모를 물려받았나 봅니다.

보디발과 그의 아내가 본 요셉의 모습은 둘 다 사실이었습니다. 하는 일의 형통함이나 용모의 준수함, 둘 다 요셉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었습니다. 요셉에 대해 보는 것이 서로 달랐던 두 사람은 요셉에 대해 기대하는 것도 서로 달랐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손에 요셉을 쥐고 싶어 합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과 동역의 대상으로 봤는데 여인은 요셉을 성적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제목

온유한 자의 복 (마5:3-5)

서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행하며 살아야 행복합니다.

1. 온유한 자

- (1) 온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이다.
- (2) 온유한 자는 겸손하고 유순한 자이다(마11:29/엡4:1,2).
- (3) 온유한 자는 말씀에 순복하는 자이다(약1:21).
- (4) 온유한 자는 제어하는 힘이 있는 자이다(벧전2:23/잠15:28).

본론

- (5) 온유한 자의 복: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5절/시37:9)

2. 교훈

- (1) 나는 온유한 자인가?(민12:3)
- (2) 온유한 모습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 (3)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인가?

결론

온유한 자가 되어 기업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Q.T.

은혜를 기억하는 제사,
공의를 기억하는 판결

날짜 : 5월 11일

찬양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본문	신명기 16:13-22
	<p>3대 절기 중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장막절 혹은 수진절)이었습니다. 이 절기 역시 추수한 곡식과 포도주에 대해 감사 드리는 절기로서 한 해의 추수를 모두 끝내고 드리는 추수 감사제였습니다. 이 절기 역시 일주일 간을 지키는 절기로서 특히 초막절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을 지어 놓고 그 곳에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모든 추수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의 의미와 교훈을 깊이 되새기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p> <p>이스라엘의 재판장과 관리들은 반드시 그들의 판결과 치리에 있어 공의로워야 했습니다. 이들의 판결과 치리는 이스라엘 전체의 공의의 중요한 잣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과 내용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특히 이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공의로 백성들을 판결하고 재판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것은 첫째,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사건을 깊이 심리하며 내면적인 고찰을 마친 후 판결하라는 것과 둘째,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뇌물은 지혜자의 마음을 굽게 하며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의를 좇아 판결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게 해야만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땅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들이 그 곳에서 영원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p>
묵상질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나님이 명하신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인가요? 2. 하나님께 인색하게 드릴 때와 힘을 다해 드릴 때,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오늘의 기도	

개인성경공부

감사의 제사, 공의의 실현

찬양과 기도	아 하나님의 은혜로 (새 310/통 410)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p>1860년 9월, 미국 미시간 호수에서 유람선 한 척이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이 호수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배에 타고 있던 대학 수영 선수 에드워드 스펜서가 온 힘을 다해 17명을 구출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일 언론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한 그의 영웅적 행동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R. A. 토레이 박사가 노인이 된 스펜서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물어보았습니다. “그 당시 목숨을 구해 준 17명 중에 몇 명이나 감사를 표시했습니까?” 스펜서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딱 한 사람이요. 어린 소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소녀는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김없이 감사 카드와 선물을 보내옵니다.” 진정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평생 주님만 믿고 따르겠다고 도와 달라고 간청하다가, 일이 잘 풀리면 그런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아홉 명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p> <p>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대나무가 매듭을 지으며 자라듯 감사의 매듭을 지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p> <p>마땅히 감사를 고백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지나친 경우는 없었나요?</p>
말씀 나누기	신명기 16:13-22
묵상포인트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한 해 수확으로 인해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추수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자원함과 기쁨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예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곧 이웃 사랑으로 발현됩니다. 잔치 자리에는 소외되고 연약한 지체를 초대해 그들과 기쁨을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예배나 절기 때뿐 아니라, 일터와 직장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초막절은 언제, 며칠 동안 지켜야 하나요? 초막절을 누구와 함께해야 하나요?(13~15절)
적용하기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표현하나요? 하나님 은혜를 잊고 내 의를 내세운 일은 없는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매 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감사하게 하소서. 입술로 감사함에 그치지 않고 제게 맡겨 주신 생활 터전에서 공의를 실현함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나타내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찬양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본문	신명기 18:15-22
	<p>모세는 특별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특성인 원근통시적인 이중적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원근통시적 예언이란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시대나 가까운 미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과, 이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성취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나 종말에 관한 궁극적 예언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의 이 예언도 1차적으로는 모세 이후에 나타나게 될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세와도 같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모세는 단순한 하나님의 선지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였고, 왕과도 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예표론적 의미로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자신과도 같은 역할을 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p> <p>모세 이후에 나타나게 될 선지자들 중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면 서도 선지자인 척하는 사람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적을 행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 믿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서 성취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증험과 성취함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선지자의 시금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했습니다.</p>
묵상질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와 같은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나요? 2. 내가 가감 없이 선포할 하나님 말씀 혹은 두려움으로 순종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찬양	찬송가 522장 원일인가 내 형제여
본문	신명기 17:1-13
	<p>모세는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곳에 들어가서 빠지게 될 우상 숭배를 경고하면서,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자들에 대한 처벌 규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행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처죽하여야 했습니다. 특히 그들을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죽인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 당하는 죽음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경계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돌로 쳐죽이는 형벌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이스라엘 공동체를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고와 예방 차원의 처형법이었습니다.</p> <p>두 사람 이상의 증인에 의해 우상 숭배자를 처형하라는 규례를 명령한 후 모세는 재판에 관한 제도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등의 부장 제도를 제정하여 그들이 백성들간의 대소사를 판결해 줌으로써, 해당 지파나 지역에서 거의 모든 송사가 판결났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판결이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중앙에 세워진 제사장과 재판장으로 구성된 재판소에서 판결받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는 후에 산헤드린 공의 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p> <p>내려진 판결에 대해서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재판장이 율법에 근거해 내린 그 판결은 하나님의 권위로서 판결된 최종적 판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판결에 불복종한다면 그것은 당시의 재판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p>
묵상질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체의 영적 순결을 위해 권징을 행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2. 진퇴양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찬양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본문	신명기 17:14-20
	<p>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반드시 지켜야만 할 3대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말의 주산지는 애굽이었습니다. 때문에 말을 많이 두려면 애굽과 교류해야 하고, 그러면 애굽의 우상들이 유입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말은 비유적으로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보다 군대의 힘을 의존하지 말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이웃 나라와의 정략 결혼으로 인해 그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왕이 향락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금지 사항이었습니다. 셋째는 은 금을 많이 쌓아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왕이 자신의 부를 추구해서는 백성들의 복지를 생각 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부의 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멀어져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금지 사항 외에 모세는 왕에게 한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읽으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말씀에 따라 살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길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p>
묵상질문	1.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는 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지도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의 기도	

찬양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본문	신명기 18:1-14
	<p>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반드시 성소가 있는 중앙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또한 율법 교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문은 만일 지방에 있던 레위인들이 신앙적 열심으로 중앙 성소에 가서 직무를 수행하고 싶어하면 그것을 허용하라는 내용입니다. 즉 그들에게도 본래 중앙 성소에 있던 레위인들과 똑같이 대우해 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중앙 성소가 독점적인 역할을 하여 생기는 폐단을 미리부터 막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교권 주의의 횡포를 막는 조치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예방 조치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p> <p>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의 범죄를 본받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해 해야 하는 히브리어 '타밈'은 '흠 없는, 온전한'이란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의 기준에 어긋나지 말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이같이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 완전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결하여 하나님과 같은 수준을 의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태도와 삶의 진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p>
묵상질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어떻게 돕고 지원해야 할까요? 2. 주위에 미신과 주술에 현혹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권면해야 할까요?
오늘의 기도	

금주의 성경암송구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17)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11)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6:14,15)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7)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6-18)